

# 배추(2).....



■ 이관석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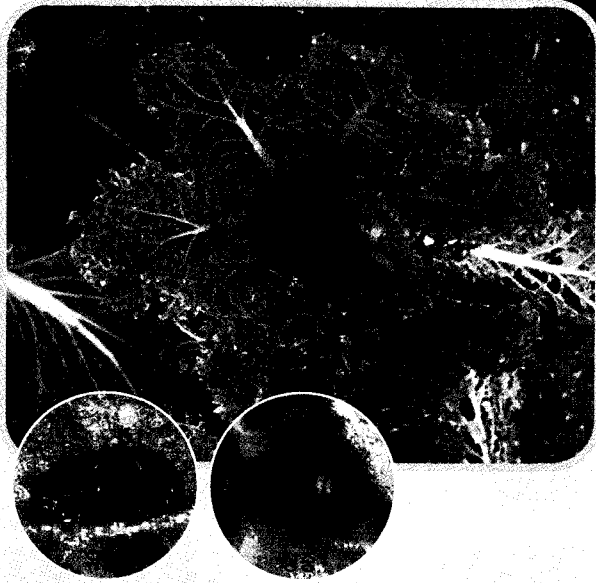
## 벼룩잎벌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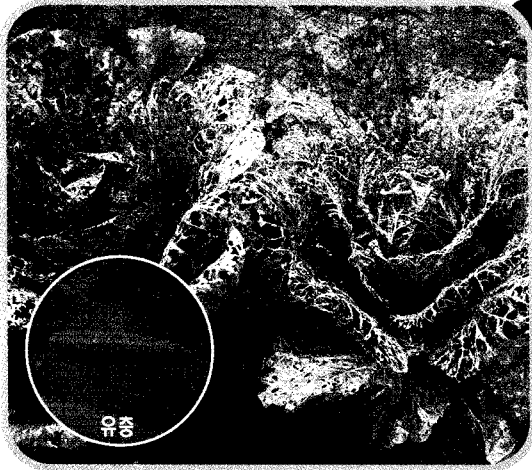
딱정벌레목 잎벌레과. 성충은 2-3mm 정도의 타원형이다.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며 날개딱지에 황색의 세로줄 무늬가 양측에 있다. 외부로부터 위협 받으면 벼룩처럼 튀어 도망간다. 다 자란 유충은 유백색으로 8mm정도이다. 토양 중의 흙집 속에서 번데기가 된다. 성충으로 월동하고 연 3-5회 발생한다. 성충은 어린 잎을 가해하여 작은 구멍을 내는데 식물체가 자라면서 구멍이 점점 커진다. 유충은 토양 중에 서식하면서 뿌리 표면을 불규칙하게 가해하여 작물의 생육을 저해한다.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피해가 심하다.



## 좁은가슴잎벌레

딱정벌레목 잎벌레과. 성충은 4mm 내외의 타원형이며 광택이 나는 흑남색 또는 청남색을 띤다. 유충은 방추형으로 밑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옅은 황녹색이지만 자라면서 점차 거무스름해진다. 각 마디마다 육질돌기와 강한 털들이 나 있다. 노숙유충은 토양 중에 흙집을 만들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된다. 성충으로 월동하며, 봄에 출현하는 개체는 2-3세대를, 가을에 출현하는 개체는 1-2세대를 거친다. 성충과 유충이 모두 잎을 갉아 구멍을 뚫어 피해를 주며, 심하면 식물체 전체를 폭식한다.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피해가 많다.





## 매추좀나방

나비목 좀나방과. 성충은 6mm정도로 크기가 작다. 어린유충은 담황갈색을 띠지만 점차 녹색으로 변해 다 자란 유충은 진한 녹색을 띤다. 번데기는 6mm정도이다.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 1년에 8-12세대를 거친다. 유충이 잎을 갉아 구멍을 내는 피해를 준다. 유충을 건드리면 실에 매달려 밑으로 떨어지는 행동을 보인다. 1마리의 섭식량은 적지만 어린 유충부터 3-4령 유충이 집단적으로 가해하기 때문에 피해가 심하다. 보통 봄부터 초여름까지 발생이 많다.

## 매추순나방

나비목 잎말이나방과. 성충은 7mm내외로 몸 전체가 회색인 작은 나방이다. 유충은 12mm정도이고 머리 부분이 흑갈색이며 횡선이 있고 몸 마디마다 작은 흑색점과 가는 털이 나 있다. 노숙유충은 잎을 말고 그 속에 들어가 번데기가 된다. 1년에 2-3회 발생하며 번데기로 월동한다. 1령 유충은 잎 표면을 기어 다니며 갉아먹지만 2령부터는 잎을 말고 그 속에서 가해한다. 주로 고갱이의 성장점을 갉아 먹는다.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올 때 발생량이 많으며, 남부지방에서 주로 발생한다.



## 도둑나방

나비목 밤나방과. 어린 유충은 녹색 또는 흑색으로 색체변이가 심하다. 노숙유충은 40mm 정도로서 회색색 바탕에 갈색반점이 많다. 1년에 2회 발생하며 번데기로 월동한다. 1회 성충은 4-6월에, 2회 성충은 8-9월에 발생한다. 유충이 잎을 가해하여 피해를 주며, 결구 속에 들어가 가해하기도 한다. 노숙유충은 땅에 떨어져 번데기가 된다. 어린 유충이 무리지어 집단적으로 가해할 때 피해가 심하다. 유충기간은 40-45일 정도이다. 봄, 가을에 발생이 많다. ♀

